

다산포럼

소득분배와 성장의 관계, 국제적 인식이 바뀐다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 공개한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이 현 경제정책 기조의 수정을 촉구하면서 그 근거로 삼기도 했다. IMF 소속의 경제학자 5명이 1988년에서 2008년까지 세계 각국의 소득 분위별로 소득의 변화를 분석했는데, 선진국에서는 9분위와 10분위(상위 20%)의 소득이 주로 증가했고, 신흥경제 국가에서는 하위 두 분위와 상위 세 분위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우는 선진국과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전체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몫(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 것이 불평등 심화에 기여했는데, 대다수 선진국에서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격차가 커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흥미롭게도 한국은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발견들과 함께 이 보고서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은 "상위 20% 계층의 소득 몫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 동안 GDP는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혜택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반면에 하위(저소득층) 20%의 소득 1% 포인트 상승은 경제성장을 연평균 0.38% 포인트 높인다"라는 것이다. 결국 하위계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성장에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지난 30여 년간 웰스트리트, 미국재무부, IMF라는 세 주체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제시해 온 경제관 혹은 정책관을 반박하는 근거와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주류적 견해를 표현하는 말이 (경제성장의) 혜택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소위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이

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투자의 주체이니 이들의 소득이 늘면 투자가 촉진돼 경기가 좋아지고, 자연히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이다. 성장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은 혁신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노동유인을 줄여 성장에 해롭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정부의 완고한 입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보고서는 명시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 불평등이 성장과 고용 확대를 저해한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노동기구(ILO)나 유엔개발계획(UNDP) 등에서도 틈틈이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성장에 저해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작년 12월 보고서에서 낙수효과와 환상에서 벗어나서 양극화를 해소해야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또 2011년의 월가점령운동의 핵심 주장이기도 했으며, 2013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트리클다운 경제학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선언도 있었다. 이번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

이 IMF에서 나왔고, 가장 노골적이고 명시적으로 웰스트리트와 미국재무부, 그리고 IMF의 기존 입장에 회의를 던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교황의 발언이 있었을 때, 미국의 주요 언론과 경제학자들이 교황이 왜 그런 좌파적 편견을 갖고 있는가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들 정도이다. 물론 첫 페이지에 "저자들의 견해이고 반드시 IMF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듯이 이 보고서 하나를 두고 IMF의 입장이 의미 있게 변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양한 견해들 중의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낙수효과를 없다고 해도 좌파 운운 하지는 못할 것이 분명하다. 오바마 정부가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을 들고 나오고,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에서 각기 대통령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스티글리츠와 서머스 교수가 올해 들어 불평등과 저성장을 연결 짓는 보고서를 내놓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정가에도 대선을 앞두고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웰스트리트뿐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계와 정부는 어디로 갈까?

서재, 세상을 말하다

윤정현의 삼연재(三研齋)



박철상 문학박사·광주은행 영업지원부장

침계 윤정현(尹定鉉, 1793~1874)은 서재 이름을 삼연재(三研齋) 하였다. 그는 삼학사의 한 분인 윤집(尹集, 1606~1637)의 후손이자 정조가 아꼈던 문신 윤행임(尹行縵)의 아들로 예조판서 등을 지낸 문신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중원은 신을 청나라가 명나라를 밀어내며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들은 곧 조선까지 침략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그것이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던 조선 조정에서는 최명길 등이 화전을 주장했지만 윤집은 오달

제, 흥익한 등과 함께 상소를 올려 이를 반대하였고, 끝내는 청나라에 끌려가 갓은 고문을 당한 끝에 사형 당했다. 조선은 명나라의 도움으로 임진왜란을 승리로 끝마쳤기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 있던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지식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다. 결국 윤집은 명나라의 숭정 황제를 위해 죽음을 택했던 것이다. 이처럼 윤정현의 집안은 조선 후기 충절을 상징하는 집안이었다. 윤정현이 서재를 삼연재라 한 것은 자신 모신 임금에 대한 잊을 수 없는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였다. 1872년 여름, 집안 조카뻘 되는 윤태승은 윤정현이 살고 있던 청량관(淸涼館)을 방문하였다. 송나라의 소동파(蘇東坡)는 일찍이 선비가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먼 길을 여행 중인 나그네가 서늘한 여관에 들어가 옷을 벗고 씻는 것에 비유했는데, 윤정현은 그 말을 좋아하여 자신의 집을 청량관이라 하였다. 벼슬에서 물러난 윤정

현은 청량관에 기거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윤태승이 찾아오자 벼루 세 개를 꺼내 보여주면서 자신의 서재를 삼연재라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건넨다. 윤태승이 받아든 벼루는 현종 임금의 어필이 새겨진 벼루, 용이 새겨진 벼루, 유상곡수도(流觴曲水圖)와 난정수계서가 새겨진 벼루였는데, 세 가지 모두 옛날 벼루였다. 벼루를 본 윤태승은 윤정현이 어부들이 너무 좋아한 나머지 서재를 삼연재라 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현종은 서화에 대한 애호가 남달랐기 때문에 벼루 또한 많이 수집하고 있었다. 윤정현은 현종이 살아 있을 때 고향에서 모시며 인정받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현종이 죽자 그 벼루들이 민간으로 흘러나왔다. 이를 본 윤정현은 그 벼루들을 하나하나 구입하여 서재에 모셔두었다. 바느질 등을 치르고 구입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골동품과 바꾸기도 하였

다. 윤정현이 이렇게 벼루를 구입한 것은 평소 자신을 아껴주던 현종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벼루를 보면서 현종을 생각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서재의 이름마저 벼루 '연(硯)'자를 넣어 세 개의 벼루가 있는 서재란 의미로 '삼연재'라 하기로 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끼던 물건이나 산천(山川), 또는 자신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을 서재의 이름에 붙이지만, 윤정현은 죽은 임금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서재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다. 지금은 삼연재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다. 그곳에 소중히 보관되었던 현종의 벼루도 종적을 감춘 지 오래다. 그래도 삼연재에 담겨있던 윤정현의 '충심(忠心)'만 큼은 지금도 느낄 수 있다. 삼연재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선인들이 서재 이름 짓기에 그다지도 공을 들인 것은 죽어서도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社說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내실을 다져라

어린이들은 학교폭력을 비롯해 유괴 등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광주·전남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내실 있게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지난 2008년 경찰이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치안시스템이다. 전국의 초등학교 통학로나 놀이터 주변의 상가, 24시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했다. 이렇게 해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도움 요청 시 임시보호 및 경찰 연계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달 현재 광주·전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전지킴이집은 1694개소(광주 464개소·전남 1230개소)다. 하지만 숫자만 많은 뿐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개교한 광주 광산구

혹석동 새별초교의 경우 1km나 떨어진 운남동에 지킴이집이 설치돼 있다. 심지어 광주시 동구 소태동 광주 남초교 인근 슈퍼마켓은 폐업한 상태지만 경찰청 포털사이트에는 지난 2월 이뤄진 '지킴이집 정비·점검'뒤에도 버젓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남아 있다. 관리 부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 사례다. 또한 폐업 등으로 지난해에만 지역의 아동안전지킴이집 37개가 사라졌지만 새로 위촉된 곳은 전남 2곳 뿐이다. '조두순 사건'이나 '나영이 사건'에서처럼 큰 사건이 터지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가 아동의 도움 요청 시 임시보호 및 경찰 연계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달 현재 광주·전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전지킴이집은 1694개소(광주 464개소·전남 1230개소)다. 하지만 숫자만 많은 뿐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개교한 광주 광산구

민원 해결도 좋지만 행정 오락가락해서야

남구 봉선동의 한 어린이공원에 가면 농구대(籠球臺)에 붙어 있어 아할 림(Rim·동그란 링)이 사라지고 없다. 이용자들의 의해 훼손된 것도 아니고 도난당한 것도 아니다. 알고 보니 애초 주민들을 위해 농구대를 세운 구청에 의해 철거되었다고 한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봉선 2지구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농구대의 림은 구청에서 때어 낸 것으로 파악됐다. 독서실 등 인근 상가에서 소음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결국 남구청이 '소리 없이' 림을 때어 버린 것이다. '림이 없는 농구대'는 속되게 말하면 '팔소 없는 전뺑'이다. 한마디로 무용지물이다. 청소년과 주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이러한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갔을 것이다. 지난해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면서 함께 만든 농구대를 불과 1년 만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예산 낭비

의 전형적인 사례 아니고 무엇인가. 소수의 집요한 민원에 못 지어 '오락가락 행정'을 펼친 자치단체의 사례는 불법 주장자 단속 CCTV 이설(移設)에서도 드러난다. 북구는 상권을 침해한다는 상인들의 반발로 일부 불법 주장자 단속용 CCTV를 폐기처분하려 하니 "가로등 불빛 때문에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기관이 발 빠르게 민원에 대처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다. 예를 들어 중구청은 지난해 12월 산수동 일부 주민이 "가로등 불빛 때문에 집을 잘 수 없다"고 하소연하자 전신주에 설치된 보안등의 높이를 낮췄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살필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뒤늦게라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친 것은 나무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남구 공원의 농구대나 북구의 CCTV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행정은 주민들의 혈세를 갹아먹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748년 흑인 노예를 싣고 서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항해하던 선박이 폭풍우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신장 존 뉴턴(1725~1807)은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고, 기적적으로 무사히 귀항하게 된다. 이때의 경험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타닝 포인트'가 됐다. 그는 병 때문에 하선한 1754년까지 노예 무역선을 운항했지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흑인 노예들의 처우를 비약적으로 개선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영국 성공회 사제가 돼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이 죄를 사해 준 신의 은총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가사를 쓴다. "…이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무사히 이끌었으니/ 은혜는 나를 보향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만들어진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놀라운 은혜)의 가사에 곡이 붙어지고 이 노래는 지금까지 성기(聖歌)로 널리 불리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흑인 교회에서 백인 흑인이 권총을 난사해 신자 9명이 숨졌다. 그러나 흑인 유가족들은 애절한 고통 속에서도 '복수'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

겠다"며 '용서'의 말을 건넸다. 지난 2002년 개봉된 영화 '복수는 나의 것'(감독 박찬욱)에서는 딸을 잃은 아빠와 납치범의 얽히고설킨 '복수' 이야기가 전개된다. 신장 이성이 절실한 누나를 위해 시작한 유괴가 의외로 다르게 진행되며 서로 복수전을 펼치다 자신마저 죽게 되는 이야기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했다. 최초의 성문법으로 일컬어지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동해(同態) 복수법 규정이 언급돼 있을 정도로 복수의 역사는 뿌리 깊다. 복수는 손쉬워도 용서는 어려운 법이다. Barack Obama 대통령은 26일 열린 총기난사 희생자 장례식에서 추모 연설을 하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다. 그러자 성기대와 6000명의 추모객이 함께 합창하며 미국 사회에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과 극이 충돌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일이 수도무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첨예한 인종 갈등 문제를 앞장서 치유하는 리더의 '감성 리더십'과 '대통령의 노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송기동사회2부장 song@

어메이징 그레이스

기고

광주U대회,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 비상 계기로



장학기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지구촌 대학생들의 글로벌 대축제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로 광주 전역이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경쟁한 세계적인 도시를 제치고 광주시가 개최지로 선택되고, 5년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펼쳐지는 행사라 더욱 기대감이 크다. 약 170개국 1만4000여 명 선수를 포함해 심판과 운영진까지 2만 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 광주시를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광주U대회는 '예향'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살려 '컬처버시아드'(Cultureversade)로 치러진다니 더욱 설레지 않을 수

없다. 광주는 예로부터 '미술의 도시'로 불리온다. 조선말기 소치 허련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남종화, 오지호로 시작되는 남도 인상주의 등 국내 미술계의 한 획을 그은 미술 장르가 뿌리내리고 있다. 여기에 1995년부터 '예향'의 기반 위에 현대적이고 전위적인 미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가 20년 동안 국제 미술계의 담판을 주도하고 있다. 미술 뿐 만 아니라 가사문학, 판소리 등 문화예술의 다양한 장르가 지역의 문화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특색을 반영해 광주U대회 기간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열릴 의미를 더한다.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것과 관련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광주U대회를 맞아 백남준 예술세계를 선보이는 기획전을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스포츠와 놀이문화를 체험하는 어린이스포츠놀이축제, 도심 속 광주

피크닉페스티벌까지 전시와 공연이 눈과 귀를 흥겹게 해준다. 이처럼 지역의 문화적 역량이 총결집되어 광주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화예술적 토대 위에 스포츠 국제 행사 개최도시라는 국제적인 이미지가 더해진다면 광주는 더욱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리라 믿는다. 광주도 이번 광주U대회를 계기로 탄탄한 문화적 기반 위에 스포츠가 더해진 국제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지역민의 관심은 필수이고, 자발적으로 시민 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12월 기간 동안 성숙한 문화 시민의 면모를 보여준다면 140만 명의 광주가 세계 속에 문화관광의 도시로 각인될 것이다. 대회의 슬로건인 'Light Up Tomorrow(창조의 빛 미래의 빛)'처럼, 빛의 도시 광주가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의 도약과 비상하길 바란다.

동하는 젊은 현대 미술 집단인 yBa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전략을 펼쳤고 이는 적중했다. 2012년던울림픽 이후 런던은 현대적 역동성이 흐르는 '현대미술의 도시' 이미지가 더욱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즉 도시의 문화예술적 기반 위에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도시 브랜드가 상승하고 관광 산업까지 부흥하는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광주도 이번 광주U대회를 계기로 탄탄한 문화적 기반 위에 스포츠가 더해진 국제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지역민의 관심은 필수이고, 자발적으로 시민 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12월 기간 동안 성숙한 문화 시민의 면모를 보여준다면 140만 명의 광주가 세계 속에 문화관광의 도시로 각인될 것이다. 대회의 슬로건인 'Light Up Tomorrow(창조의 빛 미래의 빛)'처럼, 빛의 도시 광주가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의 도약과 비상하길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